

AI에 끌려갈 것인가 기수로 앞서갈 것인가

2026년 말의 해, 인공지능 활용 흐름을 짚다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6

이소영 · 이예림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만2000원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 성과가 달라지는 시대가 왔다. 신간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6'은 개인의 업무 방식부터 조직의 전략,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는 AI 최전선의 흐름을 짚는다. 저자들이 선정한 내년도 AI 10가지 트렌드 가운데 'AI 에이전트 혁명'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판단·실행하는 '지능형 동료'로서의 AI를 다룬다. 언제부터가 일반 개발자나 엔지니어 채용은 AI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자동화 도구의 확산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책은 'AI 인재전쟁'에서 AI의 중요도가 올라감에 따라 글로벌 기업 사이에 AI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AI 전문가들은 10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비인기 전공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제 AI 업계의 경쟁은 단순 채용이 아니라, '최상위권 인재'를 모시는 승부가 되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1000억 원 연봉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밖의 트렌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독립',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든 생성형 'AI의 대중화', 다양한 AI를 조화해 새로운 업무 가치를 만드는 전략 'AI 믹스' 등을 다룬다. 전자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5'가 AI 주요 도구 지도를 그렸다면, 2026년 판은 '어떤 기술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활용하고 조율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을 강조한다.

임요희기자hye@skyedaily.com

두 사람을 비밀로 이끈 건, 작은 새 한마리

한국 장편소설 새 지평을 연 진실 추적 미스터리



이시의 새

윤신우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2025년 박화성소설상 당선작 '이시의 새'가 출간됐다. 윤신우 작가는 1993년 생으로 7년간 방송기자로 일하다가 2024년 단편소설 '사각지대'로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소설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은 천문연구소 연구원 진울과 방송기자 차수지 두 인물의 교차 시점으로 전개된다. 진울은 어느 날 설명 불가능한 죽음을 맞은 낯선 이의 소식에 극심한 충격을 받는다. 이후 그는 불면증과 현실과 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존재와 현실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다. 불면의 시간을 보내던 진울은 전화벨 소리를 쫓아달라는 이웃의 항의에 직면하게 된다. 집에는 전화가 없다고 항변해 보지만 자신마저 벨 소리를 듣게 되자 공포에 휩싸인다. 그런데 소리의 범인은 행주걸이

에 앉아 있는 작고 하얀 새 한마리였다. 한편 차수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다. 제보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갑자기 신비한 일이 그 앞에 나타난다. 이처럼 진울과 차수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숨어 있는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진실을 추적해 나간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의 비밀에 다가간 두 인물은 마침내 서로를 인지하게 되는데... 책은 긴장감 넘치는 서사를 통해 이해할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아득한 사건들을 세심히 조율해 낸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 작품은 꿈과 현실, 차원과 공간이 겹치는 이야기다. 독자는 이를 통해 불안하지만 그렇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요희기자hye@skyedaily.com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AI '간부 회동' 또 빛난 K치맥



'치맥'을 세계에 알린 SBS TV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 SBS

젠슨 황 미국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소위 '간부 회동'으로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만 갈 것 같은 젠슨 황 CEO가 '치맥 회동'을 제안한 다음 날, 엔비디아는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네이버)를 아우르는 총 26만 장,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GPU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역사적인 '간부 회동'으로 한국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K컬처와 K푸드의 인기를 확고하게 증명하게 됐다. '간부'는 한국의 '치맥' 브랜드이자 친한 친구를 뜻하는 속어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단어. 한편 '치맥'은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도 등재되며 K컬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OED는 '치맥(Chimaek)'을 두고 "영어로 튀김 닭을 뜻하는 '치킨'과 한국어 '맥주'의 합성어. 프라이드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K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한국 밖에서 대중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OED의 설명대로 한국의 치맥 문화가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14년 SBS TV '별에서 온 그대'에서였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천송이가 역을 맡은



젠슨 황·이재용·정의선 하나돼 치맥 즐기며 화기애애한 만남 K푸드·컬처 인기 세계가 주목

2014년 드라마 '별그대'로 히트 2021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 세계인 서울푸드로 자리매김

게티이미지뱅크

전지현이 "치킨에는 역시 맥주지"라며 치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중국에서 조차 닭이 날개 돌진 듯 팔렸으며 2016년 3월에는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 6000명이 단체로 인천을 찾아 '별그대' 촬영지를 방문하고 월미도에서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여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다.

2016년 3월에는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 6000명이 단체로 인천을 찾아 '별그대' 촬영지를 방문하고 월미도에서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여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다.

할리원 밤의 끝을 잡고... 흥대·이태원, 아침까지 북적

"강남에서 놀다가 흥대로 넘어왔어요." 1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흥대 클럽 거리는 전날 저녁 시작한 할리원 축제를 즐기며 꼬박 밤을 새운 사람들로 가득했다. 편의점은 텅텅 비었고 국밥집은 만석이였다. 거리 곳곳에는 벽을 짚고 구토하는 취객이 보였고 악취가 진동했다. 이 모습을 본 한 행인은 "아직도 북적북적하네"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1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흥대 클럽 입장하려 줄선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동이 뜨는 시간인데도 한 클럽 앞에는 약 40명이 늘어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할리원 축제를 즐기다가 오전 5시께 흥대로 넘어 왔다는 A(24)씨는 "10분째 줄을 서고 있다"며 "열심히 코스프레한 게 아까워서 오전 8시 정도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윤산구 이태원도 불야성을 이뤘다. 인과 감지 시스템 전광판에는 '보행 원활'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었지만, 세계음식 문화거리라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스카데일리·연합뉴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